

아세안연구원 ISSUE PAPER

코로나19 이후 GMS 지역의 지속적인 관광산업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이요한 · 이문경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 · 차세대연구원)

요 약

코로나19 발생 전 GMS 지역 차원에서 제시한 관광협력 전략과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단계에서 국가 간 체계적인 관광협력을 분석하여 GMS와 한국의 관광산업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광산업은 관광수익, GDP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 등 크기에 GMS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제 관광객 유입 및 고용률의 급격한 감소 등 관광산업의 총체적 침체기를 맞이했고,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이 GMS 방문관광객이 많은 역외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 역시 GMS와의 우선협력분야로 문화관광을 제시하고 있어 협력분야에 관광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GMS 협력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다. 한국과 GMS의 관광협력 방안으로는 한-GMS 관광협력 네트워크 강화, 공동 프로모션(상호 방문의 해) 추진, 관광 부문 공동 의제 추진 등이 있다

코로나19이후 GMS 지역의 지속적인 관광 산업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

이요한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

이문경 (아세안연구원 차세대연구원)

목 차

1. GMS 관광산업 현황	3
2. GMS 관광전략 분석	3
3.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GMS 정책	4
4.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GMS 관광협력	5
5. 기대효과	6

확대메콩지역이라고 불리는 GMS(Greater Mekong Subregion)는 아세안 소지역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하나로 ADB(Asian Development Bank)가 주도하는 협력 거버넌스이다. GMS는 199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GMS 참여국의 경제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적 연계협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김태윤, 김홍구, 조영희, 이요한, 신민금, 2011, p. 19). GMS 국가로는 메콩 유역 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과 중국의 윈난성(Yunnan Province)과 광시성(Guangxi Zhuang Autonomous Region)¹을 포함한다².

GMS 협력 거버넌스는 관광을 포함해 농업, 에너지, 환경, 보건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통신 기술, 운송과 무역 촉진과 도시 개발 분야에 주력해 왔다(조원득, 2020, p. 10). 그중 관광업은 GMS 국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고용률, 관광수익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다(Sihabutra et al., 2021, p. 1173). 관광산업은 태국을 제외한 GMS 국가에게 저개발 상황을 극복하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김석우, 2021, p. 3).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신종플루(Pandemic Influenza)의 유행으로 GMS 관광산업이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은 바가 있지만 코로나19로 발생한

1 공식 명칭으로는 광시 주양 자치 정부 또는 광시 좡족 자치구이다.

2 본 이슈페이퍼는 중국의 제로코로나(China's Zero-Covid) 정책과 도시 봉쇄령에 따른 여행 제한으로 동일하게 지역적인 관점이나 회복정책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메콩 5개국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피해는 기간과 규모 면에서 이전 전염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코로나19 이후 GMS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역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2019년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Mekong-Rok Summit)에서 발표한 한강-메콩강 선언(The Mekong-Han River Declaration for Establishing Partnership for People, Prosperity and Peace)은 문화관광,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농업·농촌 개발, 정보통신, 환경, 비전통 안보를 포함한 7개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하였다. 특히, 문화관광은 미·중·일 역외국의 GMS 협력 분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이 차별화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관광산업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서비스 업종 중 하나인 만큼 회복 단계에서도 협력의 기대 효과가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하다(구진경, 2020, p. 60).

1. GMS 관광산업 현황

코로나19 이후 항공, 호텔 산업의 위축 및 국경 봉쇄로 인해 세계 관광산업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김정서, 이걸재, 2021, p. 8). 2020년 초반 코로나19가 GMS 전역에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였으며 이는 무역, 투자, 관광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국제 관광객 유입 감소의 70%-80% 감소에 따라 호텔, 교통, 레저 등과 같은 관광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Mekong Tourism Coordinating Office, 2017, p. 10). 이는 관광수익, GMS 국별 GDP에서 차지하는 관광GDP(Tourism GDP) 비율, 고용률 감소를 가져왔다.

2. GMS 관광전략 분석

GMS 관광 실무 그룹(GMS Tourism Working Group, GMS TWG)³은 2004-2005년에 ADB의 지원으로 소지역의 통합과 공정한 비전 촉진을 위한 장기 관광전략으로 GMS 관광부문 전략(GMS Tourism Sector Strategy 2005-2015)을 수립하였다(메콩 관광, 웹사이트: 검색일 2022년 10월 18일).

GMS 관광부문 전략은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이해당사자가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GMS 지역주민과 문화를 존중하며 GMS만의 독특한 자연 및 문화 유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빈곤 완화 계획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GMS 관광부문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로는 ① 단일 관광여행지로서의 GMS 개발 및 홍보 ② 역내 관광 수익

3 GMS TWG는 캄보디아 관광부, 중국 문화관광부, 라오스 정보문화관광부, 미얀마 호텔관광부, 태국 관광스포츠부, 베트남 관광행정부로 구성되어있다.

이 분배(환원) 가능한 양질의 관광 상품 제공 ③ 각 GMS 국가의 관광 개발 노력 추가 ④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빈곤 감소, 성 평등, 여성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of women),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기여 등이 있다(ADB, 2008, p. 2).

GMS TWG는 2016년에 소지역 관광협력 보고서로 GMS 관광부문 전략 2016-2025(GMS Tourism Sector Strategy 2016-2025)를 수립하였다(Mekong Tourism, 웹사이트: 검색일 2022년 10월 18일). 본 보고서는 전 세계 여행 트렌드와 영향, GMS 관광현황(2015년 기준) 및 주요 이슈에 따른 GMS 관광전략 방향성 및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2019년 11월 제23차 GMS 장관회의에서 관광, 농업, 에너지, 도시 개발과 같은 GMS의 주력 사업의 10년 계획 전략을 명시해둔 GMS 장기전략 프레임워크 2030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에 발표한 본 전략 보고서의 관광부문의 목표는 장기 체류와 2차 목적지 포함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으로의 전환이다(ADB, 2019, p. 57). 이를 위해 GMS 관광 부문 전략 2016-2025에서 제시한 전략 이외에 인적자원 개발에서의 경영능력 향상, 지속 가능성을 포함하여 관광산업 전체에서의 민관 연계 강화, 포괄적·지속적 관광 프로그램을 위한 관광세 징수 시스템 구축 및 강화, GMS 연계 관광을 위한 관광 인프라 개선, 관광 외의 GMS 주력사업과의 협력 증대 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3.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GMS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성의 제재와 제한으로 GMS 관광 수입이 감소하였고 이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초, GMS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정부는 격리 의무화 정책을 세웠으나 이로 인해 입국 관광객 수가 80%까지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S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여행 제한, 코로나19 검사, 밀접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필수 착용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으로 GMS 국가의 백신접종 비율을 높여 여행지로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했다(Polyzos, Fotiadis, Samitas, 2021, p. 22). GMS 국가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관광 관련 산업 실업자를 위해 사회적 보호조치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관광기업에게는 예산을 지원하였다(Mekong Tourism Coordinating Office, 2021, p. 2).

GMS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GMS 코로나19 대응 및 복구 계획 2021-2023(Greater Mekong Subregion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plan

2021-2023) 및 GMS 관광회복 커뮤니케이션 계획 & 툴킷(Greater Mekong Subregion Tourism Recovery Communications Plan & ToolKit)을 수립했다.

4.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GMS 관광협력

1) 한-GMS 관광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광장관회의 및 공동위원회 추진

한-GMS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GMS 관광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향후 한-GMS 관광협력 방안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한-GMS 관광협력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 관리와 관광장관회의와의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

2) 한-GMS 공동 프로모션(상호 방문의 해) 추진

한-GMS 공동 프로모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GMS 상호 방문의 해를 개최하여 양국의 관광객 특히 MZ 세대를 겨냥한 한국과 GMS를 관광지로서 매력을 극대화하는 한-GMS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한-GMS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관해서 한국은 GMS 관광지 간의 높은 연계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GMS 권역 관광상품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동 테마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관광상품 프로모션의 협력을 위해서는 메콩관광 이해관계자와 함께 여행 박람회 공동 참가 및 관광 프로그램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3) 한-GMS 관광 공동 의제 설정: 관광회복과 위기관리 협력, 관광인적자원 개발 협력

(1) 관광회복과 위기관리 협력

코로나19는 이전의 SARS,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과 같은 감염병 사례보다 전반적인 수요 감소, 경제 붕괴, 위기의 불확실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세계 관광 침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Polyzos, Fotiadis, Samitas, 2021, p. 4).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위드 코로나와 유사한 '위드 팬데믹' 시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산업의 재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과 협력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Beh & Lin, 2022, p. 313). 한국과 GMS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위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광회복과 위기관리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인증제도 기반 확충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위기 대응 매뉴얼 및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2) 관광인적자원 개발 협력

관광산업의 인적자원 개발 협력을 위해서 디지털과 연관된 관광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하며 한국은 GMS 국가의 디지털 인력 확충을 위해 온·오프라인 형식의 빅데이터, AI 활용, 플랫폼 활용과 같은 디지털 기술 교육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관광기업을 위해서는 한-GMS 관광 포럼을 개최하여 관광 데이터 교류 확대와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한-GMS 관광 연구기관의 교류를 강화하여 관광 연구원 단기 및 중장기 연수 과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5. 기대효과

GMS 국가는 한국과의 관광 협력을 통해 관광 관련 산업의 고용 회복 및 관광 수익, 외환 수입의 증가, 관광 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호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한국 관광객에게 관광지로서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한국은 한-GMS 연계 프로그램을 위한 국내 항공사 및 관광기업 매출 증가 등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한-GMS 관광 연계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한국 관광객(관광 수요자)에게 관광 상품의 다변화와 높은 만족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진경. (2020). 포스트 코로나19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0). 60-64.
- 김석우. (2021). 관광과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학회. 13(1). 1-18.
- 김정서, 이결재. (2021). 코로나 19 위험지각과 스마트관광인식, 스마트관광태도, 행동의도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7(1). 147-161. doi: 10.22509/kfsa.2021.17.1.010.
- 김태윤, 김홍구, 조영희, 이요한, 신민금. (2011).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조원득. (2020). 메콩강 지역에 대한 중일 경쟁과 한국의 전략. 국립외교안보연구소. 2019(27). 1-55.
- ADB. (2008). Tourism Sector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Asian Development Bank(ADB). 1-70.
- ADB. (2019).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30. Asian Development Bank(ADB). 1-21.
- Loo-See Beh, Woon Leong Lin. (2022). Impact of COVID-19 on ASEAN tourism industry. Journal of Asian Public Policy. 15(2). 300-320. doi: 10.1080/17516234.2020.1871180.
- Mekong Tourism Coordinating Office. (2017). Greater Mekong Subregion Tourism Sector Strategy 2016–2025. Bangkok. 1-71.
- Mekong Tourism Coordinating Office. (2021). Unlimited Experiences, Unlimited Stories. Collaborative communications to support a safe and sustainable tourism recovery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1-25.
- Polyzos, Stathis; Fotiadis, Anestis; Samitas, Aristeidis. (2021). COVID-19 Tourism Recovery in the ASEAN and East Asia Region: Asymmetric Patterns and Implications.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1-34.
- Sihabutr, C, Sompholkrang, M, Sirimat, S, Panyasit, K & Nonthapot, S. (2021). Factors influencing tourism investment in the CLMVT countries. Accounting, 7(5), 1173-1178. doi: 10.5267/j.ac.2021.2.021.

<웹사이트>

메콩 관광(<https://mekongtourism.org/about/>)

필자소개

이요한 연구교수는 대학원 석사과정부터 ASEAN 연구를 해왔으며 200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라오스 루앙프라방국립대(수파누봉대)] 사업을 계기로 라오스에서 약 5년간 체류하면서 메콩(Mekong) 소지역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한국외대 CORE 사업단 연구원·고려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원 연구교수·한아세안센터 편집위원·한국외대 특수외국어진흥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와 강의 및 프로젝트를 수행해왔다.

이문경 차세대연구원은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학과를 거쳐한-베 번역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동남아 대륙부 메콩경제권인 GMS(Greater Mekong Subregion)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원 소개

<아세안연구원>은 1997년 아시아지역연구소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동남아시아연구소(2007~2021), 동남아지역원(2010~2019)이란 연구소명으로 활동하다가 아세안공동체의 출범과 한-아세안 관계 심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9년에 현재의 연구소명을 변경하였다. <아세안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에 선정되어 총 10년간(2009.09~2019.08)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했다. 현재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전략적지역연구형)에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아세안 소지역(subregion) 연계를 통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전략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아세안을 향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세안연구원>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SCOPUS 등재 국제영문학술지(SUANNABHUMI)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동남아시아학 석사 및 박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일자

2022년 3월 28일

발행처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소: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센터 A504호

이메일: iseas2@bufs.ac.kr, kiasbufs1990@gmail.com

홈페이지: <https://iseas.bufs.ac.kr/>

전화: 051-509-5670(+82-51-509-5670)

팩스: 051-509-6649(+82-51-509-6649)

본 이슈페이퍼는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이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업(NRF-2021S1A5C2A01087076) 지원을 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연구원 이슈페이퍼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세안연구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